

<서평>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신학적, 윤리적, 비교문화적 고찰』

유선명 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김희석*

이 책은 유선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출간된 책인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¹⁾ 저자는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히브리학과에서 지혜문학의 거장인 마이클 팩스(Michael V. Fox)의 지도하에 박사논문을 완성하였고,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의 지혜문학 분과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연구물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이러한 저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유익한 일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잠언에 나타난 ‘의’ 개념을 밝히되, ‘의’가 곧 지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이상적인 도덕적 성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지혜’와 ‘의’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지혜교육의 목표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잠언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지혜로 이해해왔는데, 유선명은 ‘의’를 지혜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로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유선명의 연구는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1) Sun Myung Lyu,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55 (Tübingen, Germany: Mohr Siebeck, 2012).

지혜문학 및 구약신학에 있어서 진실로 뜻깊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책의 내용을 장별로 정리할 것이며, 그 후 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서평의 지면의 한계 상 저자의 다양한 논의를 모두 정리하기는 어렵기에, 각 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및 평가가 진행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제 1장 <서론>에서 유선명은 연구의 목적과 계획을 밝힌 후 이 책의 전체를 통해 사용할 작업가설을 설정한다. 먼저 저자는 이 연구를 촉발한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기존의 의로움에 대한 연구들이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의로움의 개념 자체를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수행되어 ‘의로움’을 교리적인 의미에서만 접근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의로움에 대한 연구가 예언서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저자는 잠언이 설명하는 의로움을 ‘도덕담론’(moral discourse)으로 이해하려 하려고 시도하면서 객관성, 보편성, 실질성, 자율성이라는 도덕담론의 특징을 설명한다. 잠언이 말하는 도덕담론은 단순한 윤리적 성격만이 아닌 종교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품성계발 즉 인격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유선명은 ‘개념’(concept)과 ‘개념상’(conception)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념이란 ‘이미 받아들여진 일반적 의미’이며 개념상이란 ‘개념이라는 의미의 파생물인 동시에 그것을 상술하는 특정한 견해들’이라고 정의한다. 즉 개념이란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 보다 넓은 일반적인 이해이며, 개념상이란 그 의미가 실제로 사용될 때 발생하게 되고 관찰되어지는 다양한 관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의로움’의 개념으로서의 작업가설을 1장에서 설정한 후, 이후에는 잠언 및 기타 용례들을 통해 ‘개념상’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 책의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이다. 저자가 정의한 의로움의 ‘개념’ 즉 작업가설은 다음과 같다.

의로움은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 인간 혹은 신적 개체 전체가 갖는 통합적 특성으로서 도덕적 선택에서는 반듯함으로, 사회적 거래에서는 공정함과 자비심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자신 안에 철저히 하고 내면화된 품성으로서 체화하며 의로워지려는 욕구를 배양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즐거워한다.

2장 <의로움에 관한 성서학적 이론들>에서 유선명은 의로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평가한다. 기존의 이론들을 두 가지 범주, 즉 규범 중심 이론과 관계 중심 이론으로 나누어 비평하고 있다. 규범 중심 이론이란 의로움이 어떤 규범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게제니우스(Wilhelm Gesenius), 카우취(Emil Kautzsch), 스미스(Henry Smith) 등의 견해이며, 관계 중심 이론은 의로움이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가리키는 본질상 관계적 개념이라는 관점이며 크래머(Hermann Cremer)와 폰 라트(von Rad) 등의 견해이다. 유선명은 의로움의 개념을 이렇게 규범 혹은 관계로서만 정의내리려는 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저자는 또한 의로움의 개념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 역시 간략하게 검토해 나가는데, 의로움을 각각 영혼의 순전함, 구원과 능력, 세계 질서, 인과율(consequentiality), 사회 개혁 등으로 이해하는 이론들을 언급하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유선명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넘어서서 잠언이 설명하는 의로움의 개념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잠언의 실제 본문상의 용례들, 즉 개념상들에 대한 검토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규범, 관계 등의 어떠한 개념적 범주를 넘어서는 연구여야 함을 주장한다.

3장 <잠언이 묘사하는 의인>에서 저자는 잠언에 나타난 의인 즉 ‘차디크’(צַדִּיק)에 대한 묘사들을 점검해 나간다. 이 3장은 이 책에서 저자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의로움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서 본문에 나타난 개념상들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잠언에 나타난 이진법적 인간학(binary anthropolog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진법적 인간학이란 서로 대조되는 양극의 인간형들 즉 예를 들면 의인과 악인,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자는 잠언이 이진법적 인간학을 “도덕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후 저자는 먼저 구약 전체에서 ‘차디크’의 의미를 살펴본 후 잠언 본문에 대한 연구로 들어간다. 먼저 구약에서 차디크는 이상적 인간형을 지칭할 경우 법정적, 사회적, 제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법정적 맥락에서는 도덕성 여부 정도가 아닌 소송에서의 설득력 즉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가리키며, 사회적 맥락에서는 사회경제적 입지를 말하며, 제의적 맥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림으로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띠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이해들이 의로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잠언에서 의인이란 유용성보다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도덕적인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며 올바른 행동을 할 뿐 아니라 의로워지려는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의로움에 대한 개념상들을 차례로 다뤄나가는데, 그 개념상들은 다음과 같다: 유력함(잠 14:19; 21:12), 공감능력(잠 12:10; 21:13; 29:7 등), 행복함 (잠 1:28), 현명함 등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명함’ 즉 지혜로움과 의로움과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의로움과 지혜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 둘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혜로움과 의로움은 동일대상을 묘사함으로써 서로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가 지혜로움을 원한다면 그것이 의로움의 속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지혜라 할 수 있고, 의로움을 추구한다면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온당한 의로움이 된다.

결국 잠언의 관점에서는 지혜에서 의로움을 배제할 수 없고 의로움은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

결국 저자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의로움을 향하고 있으며, 지혜교육은 의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혜습득과 성품계발을 통해 잠언이 목적하고 있는 이상적 인간형이 바로 ‘의인’ 즉 ‘차디크’라는 것이 사실상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4장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저자는 잠언이 독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잠언은 의인의 모습을 독자들을 위한 삶의 전범(paradigm)으로 제시한다. 즉 단순한 윤리적인 원리와 법칙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본받을만한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잠언은 독자들의 내면의 인격 즉 욕구와 희망과 기질까지도 이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도록 인도하고 있다. 잠언은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잠언의 교육이 유익함을 보여주는데, 교정이 불가능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로움의 교육에 대한 이상적인 꿈도 동시에 견지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성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로운 품성을 함양한다는 것은 한 번에 획득되는 단기과정 이 아니며 오히려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격 전체가 훈련받아야 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의로운 삶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살아내는 것인바, 그것이 바로 잠언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5장 <의로움의 칭송: 잠언의 평가담론>에서 저자는 잠언이 의로움의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문예적인 방식을 검토한다. 가난과 부에 대한 잠언의 입장을 살피고 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된 형용사의 용법을 조사한 후, 잠언에서 매우 중요한 ‘비교우위잠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다. 특별히 비교잠언이

가치역전의 관점 즉 어떤 대상을 부정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벤 레이벤(Raymond VanLeeuwen)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저자는 비교잠언의 가르침의 의미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인 가치’가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만족’보다 더 귀중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잠언은 의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정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지혜와 의가 가장 탁월하고 유익한 가치관임을 독자들이 깨닫고 그 가치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6장 <잠언의 의: 이집트 지혜문학과와의 비교>에서 저자는 잠언의 의인상을 이집트 지혜문학과 비교한다. 이집트 지혜문헌은 기본적으로 잠언과 유사한 점들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논점이나 궁극적인 지점에서는 구약지혜문헌과 차이점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이집트 지혜문헌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조용한 사람’을 제시하는데, 구약 지혜문헌이 말하는 ‘의로움’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격 전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의 측면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이상적 인간상의 제시는 실용적인 필요를 위함이지만, 잠언의 경우는 경건한 인격의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데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잠언이 고대근동의 정황에서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7장 <잠언의 의: 시편과의 비교>에서 저자는 잠언의 의로움을 시편과 비교한다. 시편에도 ‘의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타나는데, 사실 용례의 빈도로 보자면 ‘의로움’이라는 의미의 ‘체데크’는 잠언보다 시편에 더 많이 나타난다. 시편은 인간의 의로움을 다양한 인생의 경험상들을 통해 표현해 내며, 잠언과 같은 방식 즉 이진법적 인간학 표현을 통해 이런 경험상들을 제시한다. 저자는 시편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 즉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우 및 자신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주장하는 경우 등을 검토한 후, 시편에서 의로움은 단순한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미덕이 삶의 현실에서 관계성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시편은 의로움이 사람을 구원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고 가르치는데 반해 잠언은 의로움 자체가 곧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시편과 잠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잠언은 의로움을 보다 더 ‘내면화된’ 가치체계로 이해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잠언의 특성인 인격훈련이라는 점이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여러 주장을 펼친 후 저자는 <최종결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잠언의 의로움을 ‘독자들이 지혜를 사용해 자신 안에 내면화해야 할 미덕’이라고 결론짓는다. 내면화된 의란 야웨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인격 전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결론적 명제를 주장하는데, 첫째는 잠언이 제시하는 의로움이 책의 앞 부분에서 저자가 상정했던 의로움에 대한 작업가설적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잠언이 보여주는 의로움에 대한 개념상들은 잠언이 다른 구약의 책들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보여주며 이집트의 지혜문헌과도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바로 지혜를 내면화하는 인격형성이라는 측면과 도덕성과 종교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각각 그렇다는 것이며, 셋째는 잠언이 사용하는 수사와 교수법은 도덕적 인격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 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자. 첫째,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는 잠언을 ‘의로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이는 구약신학 전반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지혜문학 전반 및 잠언 연구에 있어서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약 전반의 연구에서 ‘의로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의로움을 여호와와의 언약적 관계에서만 살펴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선명의 연구는 지혜문학

에서의 관점을 보강함으로써 구약신학 전체를 위한 의로움에 대한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 지혜문헌 및 잠언 분야에서도 지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의로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하였는데 이 책이 그 빈 공간을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으며, 따라서 차후 잠언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저자는 의로움을 지혜와 더불어 통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의인이 잠언의 이상적인 교육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잠언 학계에서 매우 분명하고도 논리적인 새로운 주장이다. 그간 잠언을 도덕성 함양 혹은 인격교육의 방식으로 이해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주로 지혜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뿐, 의로움이라는 목적성을 깊이 고려하지는 못하였는데, 유선명은 지혜와 동등하게 중요한 의로움이라는 개념의 실제적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풀어내는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셋째, 이집트 지혜문헌 및 시편을 잠언과 비교한 부분 역시 중요한 학술적 공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고대근동문헌과 구약성경을 비교함에 있어서 유사성 뿐 아니라 잠언이 나타내는 독특성까지 고려하였고, 동일한 방식을 시편과의 비교연구에도 적용하여, 잠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필자(서평자)의 관점에서 두 가지 의견을 간단히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선명은 지혜와 의로움의 상호관계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지혜자와 의인의 관계가 잠언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상정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면 더욱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잠언 1-9장 및 30-31장이 잠언의 해석학적 서론 및 결론이라고 이해하며, 이러한 해석학적 렌즈는 ‘지혜자’의 양성을 위한 기초훈련(1-9장) 및 지혜자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묘사(30-31장)이라고 이해한다. 즉 1-9장 및 30-31장은 의로움보다는 주로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잠언의 본론이라고 이해되는 10-29장은 지혜보다는 주로 의인에 대한 설명이 주로

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필자는 잠언의 가르침을 ‘지혜자가 됨으로써 의인이 되는 인생의 훈련과정’으로 이해한다. 유선명의 주장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그가 말하는 지혜와 의로움의 관계가 이러한 해석학적 틀을 보다 깊이 고려할 수 있으면 더욱 유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둘째, 유선명의 의로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잠언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연구가 다른 지혜문헌 혹은 구약의 다른 책들로 확장되어서 구약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더 큰 통전적인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장차 논의될 수 있다면 유익하리라 본다. 귀한 연구를 제시하여 주신 저자 유선명 박사께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지혜문헌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2017년 10월 17일, 수정일 2017년 10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초록>

유선명,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신학적, 윤리적, 비교문화적 고찰』 서평

김희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는 잠언을 ‘의로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구약 전반의 연구에서 ‘의로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의로움을 여호와와의 언약적 관계에서만 살펴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선명의 연구는 지혜문학에서의 관점을 보강함으로써 구약신학 전체를 위한 의로움에 대한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잠언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저자는 의로움을 지혜와 더불어 통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의인이 잠언의 이상적인 교육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잠언 학계에서 매우 분명하고도 논리적인 새로운 주장이다. 유선명은 지혜와 동등하게 중요한 의로움이라는 개념의 실제적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풀어내는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집트 지혜문헌 및 시편을 잠언과 비교한 부분 역시 중요한 학술적 공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지혜문헌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